

주일의말씀

##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

김정렬 베드로 신부  
포항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4대리구 사회복지 담당



더운 여름날의 시원함을 주님의 사랑에 가득 담아 드립니다.

주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남은 조각이 열두 광주리를 채울 정도였다는 오늘 복음의 말씀은 '나눔'의 상징으로 잘 알려진 기적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 '나눔'의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의 깊게 살펴보면 주님께서 '나눔'을 말씀하시기에 앞서 '만남'의 소중함을 더욱더 강조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주님께서 많은 군중이 모이자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시는데 제자들은 불가능하다고 변명합니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진 것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 부족함 속에 주님의 자리를 마련하기 보다는 우리의 힘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이것 밖에 없다.'고 하는 마음에는 더 이상 나눌 것도 없습니다. 흠어져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한데 모으셨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조건과 이유를 들어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제자들의 대답은 '나눌 수 없는 이유'의 변명입니다. 그것은 '외딴 곳'이라는 변명, '시간이 늦었다'는 변명과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라는 변명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변명은 오늘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그것이 불가능함을 변명하는 우리들의 입에서도 똑같이 흘러나옵니다. "난 시간이 없어." "우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나누기에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어."

이것밖에 없음에 힘들어 하고 있는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두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시며 나누십니다. 당신 자신을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하고 말씀하신 것은 '나눔'의 사랑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만남'의 절대성이 앞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천 명의 군중을 군중으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을 '측은한 마음'으로 보셨으며, 따라서 그들과의 만남을 절대적인 만남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사랑은 나눔입니다. 그러나 그 나눔이 참사랑으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나눔'의 행위보다 먼저 '만남'의 행위에 더 운명적인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습니다. 주님께 있어 너와 나는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언제나 준비하고 계십니다. 더운 여름날 나 자신을 나누며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 두 광주리가 넘는 시원함을 선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미사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아 가도록 합시다.

생명의말씀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마태 14:20 참조)

제1독서 : 이사 55,1-3 제2독서 : 로마 8,35,37-39 복음 : 마태 14,13-21.



## 무엇을 믿습니까?

### 신경이란?

문화홍보실

신경(信經, Credo)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교회가 바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맨 처음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적에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요한 9,38),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십니다.”(마태 16,16), 또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요한 20,28)과 같은 짧고 단순한 신앙고백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사도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부터 주님의 가르침 전체를 간단하면서도 분명하게 담고 있는 신앙고백의 형태가 생겨났습니다. 지금 쓰이는 신경으로는 사도신경과 니체아-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있는데, 이 중 사도신경이 더 짧고 보다 오래 된 신경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음을 일으키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사람이 그것을 드러내어 고백하는 것은 믿음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 됩니다. **신경을 바칠 때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의 예를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말씀의 전례 중에 바치는 신경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이 믿음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서로 목소리를 합쳐서 “같은 믿음”(티토 1,4)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참 아름답고 뜻 깊은 일입니다.

### 아버지, 아들, 성령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곧 성부, 성자, 성령님을 향한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보다 긴 니체아-콘스탄티노플 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명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마태 28,19) 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비자가 세례를 받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먼저 하는 것은 주님의 이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므로 성부, 성자, 성령님께 대한 믿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신경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지침이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회의 교리서는 옛 것이나 새 것이나 모두 신경을 풀어 설명하는 부분을 제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교리라고 하면 그만 딱딱하고 재미없는 느낌을 주기 쉽지만, 사실 신경의 내용은 매우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신경은 지식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를 극진히 아끼시는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호부터 매월 한 회씩 신자 재교육을 위한 사도신경 해설을 연재합니다.

## 본받을 건 본받고

박성규 엘리지오





오늘의 미사

연중 제 18주일

입당성가

438 주께 감사드리자

화답송

◎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 주소서.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510 주님께 올리는 기도

영성체송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빵을 주셨으니, 그 빵은 누구에게나 맛이 있어 한없는 기쁨을 주었나이다.

파견성가

401 주를 찬미하여라

영성의 향기

:: 그리스도를 닮기

거룩한 사람이 되는 길은 예수님을 닮는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본래 거룩한 사람이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닮는 한에서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한 소질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이것을 인간의 재주나 노력으로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모습대로 만드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며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이 같은 은총에 사람이 응답하지 않으면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맙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해 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에 응답하려면 예수님을 닮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바오로 사도께서는 에페소서 4장에서 그리스도를 닮는 세 가지 요건을 가르쳐주십니다. 그 첫째는 지난 생활 방식을 청산하는 것이고, 둘째는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셋째는 의롭고 거룩한 새 생활의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첫째 요건은 회개하는 것을 뜻하고 둘째는 성사의 은총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지만, 세 번째, 즉 생활 습관을 새롭게 들이는 것은 즐기차게 훈련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도우심을 믿고 끈질기게 노력해야 합니다.

- 교구 사목국 권가타리나 수녀 -

교부들의 지혜

주님께서 내 짐을 져 주시듯



그대가 착실한 제자들만 사랑한다면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보다 말썽 빛는 사람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도록 힘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짐을 져 주시듯 당신도 모든 이의 짐을 져 주십시오. 사랑의 정신으로 모든 이들을 참아 주십시오. 굳센 선수처럼 모든 이들의 약점을 지고 가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결국 자신이 주인이 아니고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일은 하느님의 일이고 또 당신이 그 일을 다 마친 다음

에는 당신의 일이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하느님께 속하는 이 좋은 일을 할 마음이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가 블리카르보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

성소 / 파정

조이플 스테이(21~25차)

주제: 은총의 바다 속으로  
일시: 8.6~7/13~14/14~15/20~21(토~일)  
장소: 예수성심시녀회(대구)  
대상: 미혼여성(회비 없음, 미사 준비)  
문의: (010)2649-2045

더 나은 혼인생활을 위한 ME주말

대구291차: 8.26(금) 19:00~28(일) 18:00  
장소: 한티피정의집, 문의: 983-0521  
사랑의 대화 방법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체신심세미나

일시: 8.26(금)~28(일), 2박3일  
장소: 사수동 포교성베네딕도수녀원 영성관  
내용: 성체현시·조배, 강의, 참회예절, 면담성사, 안수  
강사신부: 이홍근, 하성호, 송재준, 서덕교, 정기모  
문의: 010)5493-1819, 회비: 15만원

교육 / 모집

8월 영어 성경공부반 모집

개강: 8.2(화) 10:00~12:00, 월 2만원  
과정: 화필리피, 여호수아/ 목파르코, 창세기  
문의: 관덕정, 254-0151 / (010)2578-5535

환경위원회 명상 체조반 개강

개강: 8.2(화)  
시간: 화, 금요일 14:00~16:00

수강료: 2개월 6만원  
문의: 253-3655 / (010)3015-6656  
**레지오마리에 3차 성경을 통한 선교학교**  
일시: 8.24(수)~10.26(수)

매주 수요일 10:00~12:00, 10주간  
장소: 교구청 교육원 나동 4층 대회의실  
강사: 박병규 요한보스코 신부  
문의: 대구 세나투스, 256-3574

제19기 성요셉 아버지학교 개설

일시: 8.27(토) 15:00~21:00, 매주 토(6주간)  
장소: 교구청 별관 1층 대회의실  
대상: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면 누구나 가능  
마감: 8.23(화)까지(선착순: 40명)  
문의: 641-5678, 신청비: 15만원

SPC 에니어그램 연구소 교육생모집

에니어그램1단계: 8.30(화) 저녁반, 9.1(목) 오전반  
중장년기의 여성강좌 : 8.30(화) 10:00~12:00  
문의: 254-2664 / 659-3455-6

대구가톨릭대평생교육원 수강생모집

기간: 8.17(수)~24(수)  
과정: 학점은행, 음악원, 자격·교양  
문의: 660-5551~7

대구가톨릭대학교 TESOL

IVY리그 펜실베이니아대학 제휴  
유학시 학점인정, 1년 내 석사학위

무료어학연수기회, 신부님추천장학  
21주 180시간, 영어전담강사 지원가능  
문의: 526-0111 (<http://tesol.cu.ac.kr>)

소중한 아기 가정위탁 봉사자 모집

(대구 시내 동구, 수성구, 북구)  
문의: SOS아동보호센터, 756-7348  
**과달루페집(스페인어, 일본어)**  
**여대생 기숙사생 모집**  
주소: 대전시 서구 괴정동114-3  
문의: 성체선교콜라라수녀회, (042)534-8876

직원 채용

나자렛노인전문요양원 요양보호사 모집

대상: 영천시 거주 요양보호사(자격증 소유자)  
문의: 나자렛노인전문요양원,  
(054)334-2006-7 / (010)6384-1935

한티순교성지 피정의집 여직원 모집(마감: 8.10)

자격: 한글위드와 엑셀에 능숙한 1970년 이후 출생자  
구비서류: 자기소개서(자필), 이력서, 세례증명서  
문의: (010)5442-6112 / (054)975-5154

안내

교구 법원 공시 (043)210-1705

아래 공시되는 분은 8.1(월)까지 청주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성은경(이사벨라)

미사	일시	장소	미사	일시	장소
밀알후원회 및 시각장애인선교회 월례미사	8월 1일(월) 오전 11시	계산주교좌성당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성시간 및 미사	8월 1일(월) 오후 10시	한티순교성지의 집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8월 1일(월) 오전 11시	성동성당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8월 4일(목) 오후 2시	성모당
5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8월 1일(월) 오전 11시	상모성당	미사외 미사	8월 5일(금) 오후 2시	성모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8월 1일(월) 오후 7시 30분	꾸르실리교육관	성모의 기사외 미사	8월 6일(토) 오전 10시	월배성당 내 수도원
			푸른군대 첫 토요일신미사	8월 6일(토) 오후 2시	성모당

20년 역사의 SHINCHUN이 운영하는

**DINE ONE**  
나만을 위한 최고의 식사 多人園

단체급식 / 출장연회 / 프랜차이즈  
www.shinchun.co.kr 문의 ☎ 956-9900

노동부 지정  
**푸덱스 요리직업 전문학교**  
국비지원(계좌제)

취업반 **창업반** **자격증반**  
위치 ▶ 지하철 큰고개역 1번출구

원장 김 경 회 스테파니아  
Tel : 053)953-9800

소중한 건강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경대연암내과의원**

[ 내시경, 초음파, 호흡기 질환 전문 ]  
공단검진, 각종 종합검진, 예방접종

원장·전문의 **이 재 욱** 마모로  
(전 안동병원 내과과장)

☎ 475-3366 Fax. 475-3311  
봉덕동 효성타운 효성스포츠스 1층

**더블유 W Thyroid-Breast Clinic**  
**외과의원**

갑상선·유방 전문 (갑상선, 유방 검사 및 수술)  
전문의 2인 진료 (여의사)

원장 서수진(헬레나), 안재석  
대구은행역 2번출구 (대구은행 본점 건너거리)  
☎ 744-6075 www.w-clinic.kr

믿을 수 있는 의료용품 전문점

**대학의료기**

가톨릭병원 구관 앞 (대학약국 내)

김중수(베드로) · 윤점순(안젤라)

☎ 624-6844, 011-544-6844

**노블코리아**  
결혼정보회사

결혼을 앞둔 미혼 남녀의 성혼을 전  
재로 상담드립니다. 상담 수수료  
를 이수한 사회복지사가 직접 상담  
해드립니다.

상인동 홈플러스 맞은편 한상철 학원 5층  
대표 박영주 점마  
문의: (053) 639-8998

**FM치과병원**

**임플란트 ◆ 보철**

다년간 축적된 수술경험으로 환자께  
편안하고 합리적인 진료를 약속합니다

◆죽전네거리 (☎ 560-1071~2)  
(지하철 2호선죽전역 1,4번 출구)  
원장 정재원(토마스 모어)

축농증, 소아중이염, 알레르기질환, 후두질환

**김준홍 이비인후과의원**

원장·전문의 김준홍(라파엘)

TEL : 791-9005  
위치: 시지메디빌 3F  
지하철 2호선 신매역